FX Market Daily

2026-02-10

전일동향

전일 대비 9.20원 하락한 1,460.3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9.20원 하락한 1,460.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한 1,465.50원에 개장했다. 위험선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를 소화하면서 나타난 엔화 강세 흐름이 환율을 아래로 이끌며, 1,460.3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6.8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5.50	1468.30	1455.00	1460.30	1464.30
엔화	935.34	938.86	930.39	936.80	-
유로화	1737.15	1741.11	1726.47	1739.8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1	-4.79	-9.44	-15.97
결제환율(수입)	-0.73	-3.48	-7.23	-12.4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대외적 약달러 여건에...1,45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60.30) 대비 4.55원 하락한 1,457.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대외적 약달러 여건으로 하락 전망한다. 전일 미 국채 보유 3위 국가인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량 축소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여기에 미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CNBC 인터뷰에서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 역시 달러 약세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대외적 약달러 여건을 반영하며 환율은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으로 국내증시도 강세 흐름이 예상되고, 이는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며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해외주식투자 환전 등 달러 매수세의 유입은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53.75 ~ 1463.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320.1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
	■ 美 다우지수 : 50135.87, +20.2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4.2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8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